



조절초점과 해석수준이론에 따른
은퇴준비 태도 및 행동

목 차

조절초점과 해석수준이론에 따른 은퇴준비 태도 및 행동

Contents 1

문제제기 및 연구의 필요성

Contents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Contents 3

연구의 방법

Contents 4

연구결과 및 해석

Contents 5

결론 및 제언

01. 문제제기 및 연구의 필요성

은퇴는 젊은 시절부터 지속해 오던 사회활동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변화와 단절을 경험하는 시기이다.

은퇴준비의 필요성

- ▶ 평균수명의 증가(노년기 증가)
- ▶ 경제활동 시기 < 은퇴 후 시기
- ▶ 은퇴 이후 생활만족도에 영향

은퇴준비 실천

- ▶ 20·30대 : 현재지향적 삶 추구
- ▶ 베이비부머 세대 : 주택문제, 자녀 교육문제, 심각한 경기불황 등
- ▶ 은퇴준비 실천이 매우 미흡함



01. 문제제기 및 연구의 필요성

- **사회·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중심으로 진행된 선행연구들이 주를 이룸
- 사회·인구통계학적 특성은 개인의 은퇴준비를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이지만 일관된 연구의 결과를 나타내지 못함
- 은퇴준비는 통합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므로 사회·인구통계학적 특성만으로는 인간의 다양한 특성을 살펴보는 데 한계가 있음
- 은퇴준비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이해를 위해서는 **심리적 요인**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함
-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심리적 차원의 변수 중에서 **조절초점(Regulatory Focus)**과 **해석수준이론(Construal-Level Theory)**에 초점을 맞추어 은퇴준비 태도 및 행동을 살펴보고자 함

0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 조절초점(Regulatory Focus)

Higgins(1997); 인간은 스스로 성취하기로 설정한 목표에 대하여 동기를 형성하며, 이러한 동기에 따라 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이 달라진다.

목표달성을 위해 인간이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고 규제하는 동기체계로서 촉진초점과 예방초점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인간의 내면에는 조절초점의 두 가지 동기 체계가 모두 내재하고 있으며, 조절초점 성향은 사회화 과정을 통하여 형성된다.

측정방법 : 조절초점 척도를 통해 성향적 조절초점을 측정 vs. 일시적으로 상황을 조작

촉진초점

Promotion Focus

- 현재보다 나은 상태를 추구
- 긍정적인 결과와 이익에 민감
- 진취적 성향
- 새로운 상황에 대한 도전의식
- 원하는 결과를 위해 위험 감수
- 성취와 열망에 대한 강한 욕구
- 목표의 최대치에 초점
- 다양한 기회를 탐색하고 차선의 가능성을 고려

예방초점

Prevention Focus

- 회피적인 성향
- 안전, 책임, 보호 등과 같은 욕구
- 새로운 변화에 소극적인 태도
- 현상유지를 선호
- 주변 환경을 부정적으로 바라봄
- 다양한 대안을 두고 신중하게 분석

0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 해석수준이론(CLT, Construal-Level Theory)

Liberman and Trope(1998); 미래의 사건을 표상하는 방식이 심리적 거리의 영향을 받아 서로 다른 해석을 하며, 이에 따라 심리적 반응이 다르게 나타난다.

해석수준이론에서의 심리적 거리는 주관적인 개념으로서 동일한 사건이나 대상에 대한 해석을 할지라도 개인에 따라 심리적 거리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심리적 거리는 개인이 지각한 시간 거리로 볼 수 있으며, 시간적 거리는 사건의 근접성에 대한 지각으로 정의할 수 있고 개인의 심리적 거리에 대한 지각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심리적 거리를 어떻게 지각하는지에 따라서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표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행동의 방법이나 의사결정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난다.

상위수준해석

High-Level Construal

- 심리적 거리가 먼 미래의 사건이나 대상
- 추상적, 간단한, 구조적, 일관성 있는, 탈맥락적, 주요한, 핵심적 속성에 더 많은 가중치를 둠
- 행동에 대하여 왜(WHY)와 관련된 표상
- 실행 가능성과 주변적이고 비본질적 속성에 초점

하위수준해석

Low-Level Construal

- 심리적 거리가 가까운 미래의 사건이나 대상
- 구체적, 복잡한, 비구조적, 일관성 없는, 맥락적, 부차적, 표면적 속상에 더 많은 가중치를 둠
-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HOW)와 관련된 표상
-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속성에 초점

0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 은퇴준비 영향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영향요인	관계	연구
성별	남 < 여	한경혜·김주현·백옥미(2012)
	남 > 여	홍성희·곽인숙(2006), 이용재(2013)
	無	배문조·전귀연(2004), 박주영·조혜진(2012)
연령	+	김미경(1992), 김성숙·박윤아(1992), 정운영·백은영(2009)
	-	홍성희·곽인숙(2007), 차경옥·박미연·김연주(2008), 한경혜·김주현·백옥미(2012)
소득	+	최성재(1989), 김연옥(1992), 홍성희·곽인숙(2007), 정운영·백은영(2009)
	순자산	박주영·조혜진(2012)
학력	+	김정석(2001), 배문조·전귀연(2004), 홍성희·곽인숙(2007), 차경옥·박미연·김연주(2008), 박창제(2008), 박애라·최현자(2010), 한경혜·김주현·백옥미(2012), 이용재(2013)
	無	정운영·백은영(2009), 박주영·조혜진(2012)
직업	정규직	한경혜·김주현·백옥미(2012), KB 금융지주 경영연구소(2012)
	전문관리직	Evans et al.(1985)
	비정규직	신하연(1997)
	無	정운영·백은영(2009)
결혼 상태 및 자녀	기혼 > 미혼	이용재(2013), 한경혜·김주현·백옥미(2012)
	기혼 < 미혼	KB 금융지주 경영연구소(2012)

03. 연구의 방법

· 연구문제



연구문제 1.

배경변수에 따라 조절초점 및 해석수준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배경변수에 따라 은퇴준비 태도 및 행동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성향적 조절초점 및 해석수준에 따라 은퇴준비 태도 및 행동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4.

성향적 조절초점, 해석수준 및 배경변수는 은퇴준비 태도 및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03. 연구의 방법

• 조상대상 및 조사방법



예비조사

본조사

최종분석

- 수도권 거주자
- 30·40대 성인 남녀

• 2013. 10. 8 ~ 12

• 2013. 10. 17 ~ 22

• 423부 회수

• 413부 최종분석

03. 연구의 방법

• 측정도구의 구성

성향적 조절초점

- GRFM(General Regulatory Focus Measure)
- 5점 Likert 척도
- 촉진초점과 예방초점 각 9개 문항으로 구성
- 예방초점 문항을 역코딩하여 중위수를 기준으로 촉진 및 예방 성향을 구분

해석수준

- 은퇴에 대한 주관적 거리를 측정
- 10점 Likert 척도
- 평균(M=5.04)을 기준으로 집단 구분
- 1~5점 : 은퇴를 가까운 미래로 지각
- 6~10점 : 은퇴를 먼 미래로 지각

은퇴준비 태도 및 행동

- 재무적·비재무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경제적·신체적·정서적 측면으로 측정
- 5점 Likert 척도
- 전체 문항의 합은 9~45점
- 점수가 높을수록 은퇴준비 태도 및 행동이 높은 것으로 해석

배경변수

- 인구통계학적 변수 및 재무설계 관련 변수
- 인구통계학적 변수 : 연령, 성별, 결혼여부, 자녀유무, 자녀 수, 최종학력, 가계의 월 평균 소득, 직업
- 재무설계 관련 변수 : 은퇴준비 관련 직·간접 교육 경험 여부, 저축 및 투자 성향

04. 연구의 결과 및 해석

• 배경변수에 따른 성향적 조절초점

인구통계학적 변수인 가계의 월 평균 소득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
소득이 400만원 미만인 집단에서는 예방초점 성향의 사람이 많지만, 400만원 이상이 되는 집단에서는 촉진초점 성향의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변수	구분	촉진초점	예방초점
월 평균 가계 소득	200만원 미만	7(22.6)	24(77.4)
	200~400만원 미만	59(38.6)	94(61.4)
	400~600만원 미만	92(58.6)	65(41.4)
	600~800만원 미만	23(53.5)	20(46.5)
	800만원 이상	16(55.2)	13(44.8)
	χ^2	21.664*** (.000)	

04. 연구의 결과 및 해석

• 배경변수에 따른 시간적 거리

성별, 연령, 자녀유무, 직업에 따라 시간적 거리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여성 집단과 40대 집단, 자녀가 있는 집단에서 은퇴를 가까운 미래의 사건으로 더 많이 지각

직업의 경우 봉급생활자 중 전문직·관리직을 제외한 나머지 직업 유형에서 은퇴를 더 가깝게 지각

변수	구분	가깝다	멀다
성별	남자	98(49.7)	99(50.3)
	여자	150(69.4)	66(30.6)
	χ^2	16.664*** (.000)	
연령	30대	98(47.6)	108(52.4)
	40대	150(72.5)	57(27.5)
	χ^2	26.665*** (.000)	
자녀유무	있다	170(64.6)	93(35.4)
	없다	78(52.0)	72(48.0)
	χ^2	6.360* (.012)	
직업	봉급생활자		
	전문직, 관리직	38(48.1)	41(51.9)
	사무직	108(57.8)	79(42.2)
	기술직	11(61.1)	7(38.9)
	판매,서비스,생산직	16(72.7)	6(27.3)
	자영업	27(67.5)	13(32.5)
	무직(주부포함)	48(71.6)	19(28.4)
	χ^2	11.273* (.046)	

04. 연구의 결과 및 해석

• 배경변수에 따른 은퇴준비태도

성별, 가계의 월 평균 소득, 저축 및 투자성향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변수		M(SD)	t/F	유의확률
성별	남자	36.04(5.36)	-3.437**	.001
	여자	37.66(4.20)		
월 평균 소득 (만원)	200만원 미만	34.29(6.42)a	2.574*	.037
	200~400만원 미만	37.26(4.60)b		
	400~600만원 미만	37.03(4.45)b		
	600~800만원 미만	36.70(6.58)b		
	800만원 이상	37.24(4.72)b		
저축 및 투자 성향	안정형	36.87(4.75)a	2.837*	.024
	안정추구형	37.24(4.74)a		
	위험중립형	36.03(5.00)a		
	적극투자형	38.33(5.00)a		
	공격투자형	31.71(6.90)b		

04. 연구의 결과 및 해석

• 배경변수에 따른 은퇴준비행동

연령, 결혼상태, 자녀유무, 최종학력, 가계의 월 평균 소득, 은퇴준비교육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변수		M(SD)	t/F	유의확률
연령	30대	27.50(6.22)	-2.743**	.006
	40대	29.02(4.98)		
결혼여부	미혼	27.02(6.31)a	3.316*	.037
	기혼	28.69(5.44)a		
	이혼 혹은 사별	28.25(4.22)a		
자녀유무	있다	28.78(5.35)	2.454*	.015
	없다	27.36(6.11)		
최종학력	고졸 이하	26.71(5.44)a	7.109***	.000
	전문대졸 이하	26.24(5.30)a		
	대졸 이하	28.97(5.72)b		
	대학원 이상	29.83(5.19)b		
월 평균 소득 (만원)	200만원 미만	26.65(6.69)a	6.654***	.000
	200~400만원 미만	26.97(5.64)a		
	400~600만원 미만	28.70(4.91)ab		
	600~800만원 미만	30.98(6.45)b		
	800만원 이상	30.38(5.25)b		
은퇴준비	있다	31.62(5.08)		

04. 연구의 결과 및 해석

• 조절초점 및 시간적 거리에 따른 은퇴준비태도

시간적 거리에 따른 은퇴준비태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

변수		M(SD)	t	유의확률
조절초점	촉진초점	37.37(4.28)	1.935	.051
	예방초점	36.45(5.29)		
시간적 거리	가깝다	37.45(4.45)	2.897**	.004
	멀다	36.05(5.30)		

• 조절초점 및 시간적 거리에 따른 은퇴준비행동

성향적 조절초점에 따른 은퇴준비행동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

변수		M(SD)	t	유의확률
조절초점	촉진초점	29.49(5.37)	4.262***	.000
	예방초점	27.15(5.73)		
시간적 거리	가깝다	28.43(5.67)	.728	.467
	멀다	28.01(5.68)		

04. 연구의 결과 및 해석

• 은퇴준비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변수			B(SE)	β	유의확률
인구통계학적요인	성별 (남=0)	여	1.572(.545)	.162	.004**
	연령		-.057(.050)	-.064	.261
	결혼 (미혼=0)	기혼	-1.339(1.685)	-.046	.427
		이혼, 사별	.068(.856)	.006	.936
	자녀유무 (있음=0)	없음	-.626(.788)	-.062	.427
	최종학력		.196(.291)	.037	.502
	평균소득		.088(.250)	.019	.726
	직업 (전문직, 관리 직=0)	사무직	-.767(.902)	-.058	.396
		기술직	-.717(.952)	-.044	.452
		판매,서비스, 생산직	-1.131(1.202)	-.052	.347
		자영업	.458(1.302)	.019	.725
		무직(주부포함)	-.066(.675)	-.007	.922
배경변인	은퇴준비 교육여부 (있다=0)	없다	.275(.679)	.020	.685
	투자성향		-.217(.273)	-.040	.427
조절초점 (촉진초점=0)		예방초점	-.964(.485)	-.099	.047*
시간적 거리 (가깝다=0)		멀다	-1.363(.521)	-.138	.009**
R ²			.070		
F 값(유의확률)			1.852*(.023)		
Durbin-Watson			2.904		

04. 연구의 결과 및 해석

• 은퇴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변수			B(SE)	β	유의확률
은퇴준비태도			.280(.053)	.239	.000***
인구통계학적요인	성별 (남=0)	여	-.749(.580)	-.066	.198
	연령		.143(.053)	.138	.008**
	결혼 (미혼=0)	기혼	1.082(1.778)	.032	-.543
		이혼, 사별	.560(.902)	.044	.424
	자녀유무 (있음=0)	없음	-.331(.831)	-.028	.691
	최종학력		.922(.307)	.149	.003**
	평균소득		.663(.263)	.123	.012*
	직업 (전문직, 관리직 =0)	사무직	.029(.951)	.002	.976
		기술직	.124(1.005)	.006	.902
		판매,서비스, 생산직	1.797(1.268)	.071	.157
		자영업	.617(1.373)	.022	.653
		무직(주부포함)	1.266(.712)	-.248	.076
배경변인	은퇴준비 교육여부 (있다=0)	없다	-3.985(.716)	-.248	.000***
	투자성향		-.353(.288)	-.056	.221
조절초점 (촉진초점=0)		예방초점	-1.684(.514)	-.148	.001**
시간적 거리 (가깝다=0)		멀다	.162(.554)	.014	.770
R ²			.246		
F 값(유의확률)			7.575***(.000)		
Durbin-Watson			1.976		

05. 결론 및 제언

- 배경변수에 따른 조절초점 및 해석수준

성향적 조절초점

- 월 소득 400만원 미만 : 예방초점 / 400만원 이상 : 촉진초점
- 소득은 생활의 다른 측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움
- 소득이 생활에 긍정적 시각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기 때문

해석수준 (시간적 거리)

- 남자보다 여자의 경우 은퇴를 가까운 미래의 사건으로 지각
- 남성의 목표지향적 성향이 상위수준해석 선호를 형성하고, 여성의 구체적 정보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행동특성이 하위수준해석 선호를 형성
- 40대는 은퇴에 대한 객관적 시간이 가까워 짐에 따라 심리적으로도 은퇴를 가까운 미래의 사건으로 표상

05. 결론 및 제언

- 배경변수에 따른 은퇴준비 태도 및 행동

은퇴준비태도

- 여성, 가계의 월 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은퇴준비태도가 높음
- 저축 및 투자성향 : 공격투자형이 은퇴준비태도가 가장 낮음
⇒ 공격투자성향에 위험추구성향이 강한 남성이 더 많기 때문

은퇴준비행동

- 40대, 기혼자, 고학력, 고소득일수록 은퇴준비행동이 높음
⇒ 40대는 실제 은퇴 시기가 가깝기 때문
⇒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와 함께 은퇴를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기 때문
- 은퇴준비교육을 받아 본 경험이 있을수록 은퇴준비행동이 높음

05. 결론 및 제언

- 성향적 조절초점 및 해석수준에 따른 은퇴준비 태도 및 행동

성향적 조절초점

- 성향적 조절초점은 은퇴준비행동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냄
- 촉진초점 성향의 경우 목표 달성을 위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려는 강한 도전정신이 반영되어 은퇴준비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예측

해석수준 (시간적 거리)

- 시간적 거리는 은퇴준비태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
- 은퇴를 가까운 미래의 사건으로 지각하는 경우 은퇴준비태도가 높음
⇒ 남성보다 여성이 은퇴를 가깝게 지각하고 있으며, 여성의 경우 구체적이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하위수준해석을 선호하기 때문

05. 결론 및 제언

- 조절초점, 해석수준 및 배경변수가 은퇴준비 태도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은퇴준비태도

- 성별, 성향적 조절초점, 시간적 거리가 은퇴준비태도에 유의한 영향
 - ✓ 성별 : 여성
 - ✓ 성향적 조절초점 : 촉진초점 집단
 - ✓ 시간적 거리 : 은퇴를 가까운 미래의 사건으로 지각하는 경우

은퇴준비행동

- 은퇴준비태도, 연령, 최종학력, 가계의 월 평균 소득, 은퇴준비교육, 성향적 조절초점이 은퇴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
 - ✓ 은퇴준비태도 높음
 - ✓ 연령이 증가
 - ✓ 최종학력 증가
 - ✓ 월 평균 가계 소득 증가
 - ✓ 은퇴준비 교육 경험
 - ✓ 성향적 조절초점 : 촉진초점 집단

05. 결론 및 제언

• 제언

-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수도권 이외의 지역과 다양한 직업군에서의 후속 연구 필요
- 성향적 조절초점에서 소득만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 배경변수 이외에 조절초점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후속 연구 필요
- 은퇴에 대한 주관적인 시간적 거리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성별의 특성에 따른 영향력을 통제하는 것이 필요
- 해석수준이론은 초기에 시간에 따른 선호의 변화로서 시간해석이론으로 제안되었으나, 점차 공간적·사회적·확률적 거리를 포함하여 심리적 거리로 그 개념이 확장됨.
 - ⇒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거리 중 시간적 거리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은퇴준비는 통합적인 차원의 시각에서 연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다양한 심리적 거리의 측정 필요



감사합니다.